

長水 南陽里遺蹟 出土 빗살무늬토기

徐國香 (全北大 博物館)

I

유적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61번지와 그 주변일대이다. 유적의 동측에는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는 금강의 최상류인 天川이 흐르고 있으며, 조사 당시까지 발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들판과 경지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남양리유적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89년 1월 청동기 및 철기 등의 유물이 일괄로 발견, 신고되어 이것을 현재 중앙박물관장인 지건길 관장에 의해 학계에 보고되면서이다.

그리고 1996년 남양리유적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1997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은 크게 '가' 지구와 '나' 지구로 구분된다. '가' 지구는 경지정리 사업구간 중 남쪽 끝부분에 해당되는 곳으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지석묘의 뚜껑돌로 추정되는 6기의 할석괴가 자리하고 있다. '가' 지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개천에 접해 있어 상당부분이 이미 파괴되었는데 이 파괴된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후기 양식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산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무문토기도 출토되었다. 그러나 '가' 지구는 성토를 이유로 시굴조사로 조사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실제 발굴이 이루어진 '나' 지구는 1989년 유물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무덤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5기의 초기철기시대 무덤이 확인되었다.

II

'가' 지구는 지표상 유물이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보다 넓게 1미터 폭의 트랜치를 설정하여 시굴을 하였다. 그러나 유물포함층에서는 무문토기와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주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빗살무늬토기편은 지표조사와 시굴 구덩이에서 여러 점 수습되었는데 문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시굴